

투데이 칼럼

우리는 즐거움에 뛰었다!

한 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개최된 '볼 소풍'이란 기발한 행사가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다.

'볼 소풍'은 문화의전당에서 기획한 '신나는 가족 나들이' 행사다. 이 행사는 청보리밭축제 기간 중 매주 토요일 늦은 오후와 저녁 시간대 고창읍성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이곳에서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전통국악' 등 7개 체험과 '인형 아동극' 등 8개 공연, '달보이' 등 3개 영화가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줬다. 이 프로그램들 속에는 소소한 변화들이 곳곳에 있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여 즐거움을 쌓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담겨졌다.

볼 소풍이 준 많은 즐거움에 가슴이 뛰었던 이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주민이 즐겼다. 일찍이 공자는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 하였다. 행사를 개최할 때도 마찬가지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찾아오게 하는 비결은 먼저 지역주



전민중 고창군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민이 즐거워 뛰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즐거워야 손님도 즐거운 법이다.

실제 총 3번에 걸쳐 진행된 '볼 소풍' 체험객 명단을 보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즐거움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체험 부스 운영 지역주민도 상상의 외연을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둘째, 타 지역주민도 즐겼다. 2회차 토요일에는 인근 전주와 광주 등 1~2시간 거리 내에 사는 주민들이 다수 공연 등을 즐겼다.

특히 마지막 행사때는 서울과 부산, 제주 등 먼 거리에 거주하는 가

족들도 체험놀이 등에 참여하였다. 실제 전주 서신동에 사는 김정자씨는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창으로 가자고 남편을 졸랐는데 가족 모두가 즐거워해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다"라고 말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셋째, 우리 모두가 즐겼다.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어르신들의 눈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되는 어울림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직접 참여하지 않고 멀리서 이번 행사를 지켜보았던 지역주민과 관광객도 끊임

과 생동감을 느끼고 즐겼다.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처럼을 첫 진행한 행사를 두고 완벽에 가까운 즐거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진정한 즐거움은 일회성을 벗어나 매년 지속적으로 보완 개최함으로써 전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여 예측 가능성과 설렘을 줄 수 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어진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고려할 때 이번 '볼 소풍'은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데 성공한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고창읍성 매표소 집계에 의하면 올해 어린이날 전후 연휴기간 동안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하루 평균 1.8배의 타 지역 주민이 행사장과 인근을 방문했다.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고령화로 생활고를 겪어가고 있는 이 때에 즐거움이란 잠재 능력을 지닌 '볼 소풍'이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전북 발전 관심사 키워야

전북혁신도시가 다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변에는 저변에 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넓게 확산되면서 그 여론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그게 그뿐이었다.산업발전위가 제3 금융도시의 방안을 논의했을때도 구체적으로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뿐이었다. 그것은 준비가 부족한 때문이었을 터이다.그래서 본보는 계속해서 혁신도시 발전 관심사를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혁신도시가 다른 각도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이전 완료됐음에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기업 이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한 때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 상생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하는데 생색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매년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해 내놓고는 있지만 그게 실효성이 낮은 것이다. 짜맞추기식 사업 계획이라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혁신도시는 키우기에 역부족을 드러내고 있고 혁신도시를 지역 발전에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계

속 이라면 지역의 미래가 어둡다. 전북도는 혁신도시의 발전 방안을 간헐적으로 말하지 말고 꾸준히 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 현황을 보니 답답한 게 있었는데 기업들 역시나 임직원들의 수가 너무나 적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외부 인구 유입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했는데 그것을 아직은 피부로 감지할 수가 없다.

전북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지역 발전이 있으리라 여겼는데 그게 짧은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혁신도시 측은 전북 발전 관심사를 키워야겠다. 그리고 전북도 또한 혁신도시가 지금의 지리에 조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얼마나 애태우며 힘을 쏟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처음에는 터덕거리기도 했지만 한 때는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만큼 진척이 빠른 때도 있었다.그런데 그 혁신도시가 숙제를 주고 있는 지금이다. 그래서 본보는 혁신도시측에 말하고자 한다. 전북 발전 관심사를 진실로 키워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고용쇼크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북 지역의 고용 쇼크가 여전히 심각하다. 일자리 동력이 아예 꺼져버린 것 같다. 저변에 고용경보원이 전국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는 실망스런 것 뿐이었다. 그리고 전국 최하위 고용 수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대학을 나온 고학력자를 위한 직종도 드물 뿐더러 임금수준도 낮아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귀하다는 보고이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이들은 서울로 가고 있고 그럴 능력이 안되는 젊은이들은 하릴없이 실업자로 남아 방황하고 있는 오늘이다.

매년 최악의 고용 절벽을 토로하고 있는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이다. 물론 정부도 수년째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지만 죽을 주고 있다. 수십조를 투입하고도 만족할만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전북도에게 대책이 없는 게 아닌가 싶다. 정말이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아야 한다. 고용쇼크가 수년째 다른 지역보다 전북 지역이 가장 심하다.군산 사태 이후 나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은 기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고용 불안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전북의 경우는 아예 추락의 연속이다.

전북도는 이 난감하고도 답답한 현실을 언제까지 감내할 것인가. 전북도가 전국 1위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 앞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북도가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두 번 강조한 게 아닌데 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전북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년취업률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은 직시해야겠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하더라도 오히려 좋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안정은 진정성이 관건이다.

독자재언

주차예절 나부터 지키자

2018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320만2555대라고 한다. '1가구 1자동차'를 넘어 이제는 인구 2,234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자동차는 점점 늘고 있으나 정해져있는 범위 안에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야 하니 사람들도 불만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가 많음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올바르게 주차하지 못하는데서 많은 이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은 해마다 큰 수치로 증가하는데 과연 이 차량은 어디에 주차하여야 하나. 이렇듯 지켜야하는 주차예절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운전자들 모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경찰에서 자주 처리하는 민원중의 하나가 주차불편에 관한 것이다. 주요 도로의 주차단속이 강화되자 주변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져 남의 집 대문 앞에 주차를 하고도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따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 집 골목 안까지 주차장이 되어가면서

자기 집 앞에 차를 주차하지 못한 집 주인들은 불만이 쌓이고,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이 빠져나올 때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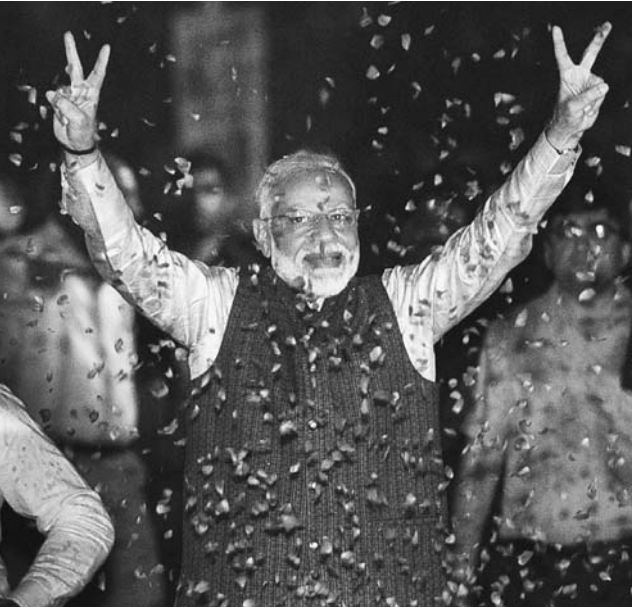
또한 아파트단지나 빌라 내에 다른 차량 앞을 가로막아 놓고서도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는 불상식을 범하는 사람들도 많다. 차주와 연락이 닿았을 때는 그나마 해결의 여지가 있다. 상황이 급박해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잠시 주차 중입니다. 연락주세요'라는 식의 메모를 남기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자. 또한 실수로 남의 자동차를 손상시켰다면, 반드시 차주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변상을 해야 한다. 연락이 바로 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두어야 한다.

조금만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부족한 주차여건 속에서도 눈살 찌푸려지는 일은 드물 것이다. 생활 속 배려와 실천, 우리 교통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최혜진 고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승리 자축'



사실상 재집권이 확정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인도국민당(BJP) 당사에 도착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V를 그려 보이고 있다. 인도국민당은 모디 총리가 지난날 1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치러진 총선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며 재선에 성공했다고 승리를 자축했으며 제1야당 대표는 패배를 인정했다. 모디 총리는 트위터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번영한다"라며 '인도가 다시 이긴다'고 승리를 선언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